

‘피터팬’ 저작권 송사에 휘말렸다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이 어른들의 송사에 휘말렸다.

캐나다의 작가 에밀리 슴마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피터팬’의 주인공들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피터팬의 저작권은 런던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이 지난 1929년 저자 제임스 M 배리로부터 넘겨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네버랜드를 떠난 피터팬에 관한 이야기를 펴낸 슴마에게 출판권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 병원측은 “병원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아픈 어린이를 위해 필요한 병원의 수입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976년의 관련법에 따라 피터팬의 저작권은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스마측은 병원측이 주장하는 권리 소멸 시효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리 경의 저작권은 배리 사후 50년인 1987년 권리가 소멸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제정된 일명 ‘미키 마우스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기한 연장법은 월트 디즈니의 만화 주인공,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사후 70년으로 늘린 바 있으며 이 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세계 상표출원, 하나의 출원서로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김광림)에 따르면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했다.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동 의정서 회원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57개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초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 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우리 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을 국제 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명실공히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ONE 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은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 상표출원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개인 및 기업 등 출원인에게는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도 국제출원의 심사를 통해 상표심사수준이 향상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우리 나라 지재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5년 이후 동 의정서 가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관련단체 및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고, 올해 업무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및 가입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동 의정서 관련 출원인 및 대리인 대상 세미나, 교육 등과 특허청 내 심사관 교육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동 의정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표에도 다이어트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르고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의 다이어트 관련 상표출원 동향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 이전에 극히 미미하던 다이어트 관련 출원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연간 100건 이상으로 증가(1997년 132건, 1998년 205건, 1999년 331건)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에 494건, 2001년에 534건, 2002 10월말까지 52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상품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체중조절 관련 서비스업의 출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적인 다이어트용 식품, 음료 외에 체중감량용 화장품의 상표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이어트(DIET)’가 결합된 상표는 ‘바이오 다이어트(BIO DIET), 다이어트 스쿨, 닥터 다이어트, 사이언스 다이어트, 다이어트 플러스, 엔조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캠프, 다이어트센터, 다이어트 워터(DIET WATER)’ 등이 있고, ‘슬림(SLIM)’이 결합된 상표로 ‘바이오 슬림, 핫 슬림(HOT SLIM), 울트라 슬림(ULTRA-SLIM), 슬림 패스트(SLIM FAST)’ 등이 있으며, 지정상품의 원료를 나타내는 ‘허브녹차, 키토산, 홍삼, 해조’ 뿐만 아니라 ‘살빼기교실’ 등의 상표도 출원되고 있다.

향후에도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에 따라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신문, TV,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의 영향으로 마르고 날씬한 체형이 좋다는 인식이 계속 확산되는 한 그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상표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천연물 의약품 특허출원 쏟아진다

신약개발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국내 제약업계와 바이오 벤처회사들이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자원확보가 비교적 쉬운 식물을 비롯해 동물과 광물에서 뽑아낸 천연물 의약품 분야 특허출원이 계속 늘고 있고 각종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이 분야 특허출원은 지난 1986년 21건에 그치던 것이 2000년에는 375건으로 늘었고 2001년에는 436건이 출원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전 의약서에 근거한 처방 이외에 새로운 한약재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 간염,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성능 개선제가 주요 개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광동제약이 간염 치료제인 편자환을, 유한양행은 골절 치료제인 유한골절산, SK제약은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스정을 개발해 제품화했고 삼천당제약은 간염 치료제인 SCD-UKG와 당뇨병 치료제인 SCD-DKY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태평양제약은 조루증 치료제인 ‘SS크림’을 개발해 제품화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천보204’ 등의 말기부전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바이오벤처인 싸이제닉은 최근 당귀 추출물을 함유하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처럼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가 뛰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의약품 제조지침(GMP) 수준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정부가 천연물 신약개발 지원정책을 펼치는 데다 전통 동양 약물에 대한 지식이 축적돼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천연물 의약품 의약품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비용과 기간이 적게 들고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계의 연구개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교수 신발 살균탈취기 개발, 시판한다

전자기 회로를 거치면서 오존을 발생시켜 세균 제거 기능

대학교수가 신발의 악취와 세균을 없애는 신발 살균탈취기를 개발했다. 영진전문대 기계기술공학센터 박길환 센터장(컴퓨터응용기계 계열)은 최근 신발에 기생하는 곰팡이와 세균, 습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신발 살균탈취기(제품명 ‘매직에어크리너’)를 개발, 이달 말부터 시판에 나선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ㄷ’자 형태인 이 제품을 벗어놓은 신발에 꽂아두면 소형 모터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전자기 회로를 거치면서 오존을 발생시켜 세균을 제거하고, 또 다른 ‘토출구’에서는 신발 내의 더러워진 공기를 빨아들여 광촉매(바이오세라믹)와 황토 소재를 통과시키면서 냄새를 제거하고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5개월만에 개발한 이 제품은 현재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특허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3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센터장은 “신발 건조기능을 가진 제품이 출시된 적은 있지만 살균을 겸한 제품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해 올해 2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현재 국가시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 오존농도 검사, 한국전자재연구원에 음이온량 및 살균·항균 능력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제품의 생산과 유통은 전문업체가 맡았으며 박 센터장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